

북한산성 자연해설프로그램 해설집

(북한산성 역사·문화)



동장대



통용사선정비



북한산성 성곽



북한산관리사무소서부지소

북한산성 자연해설집

목 차	
서울의 진산(鎭山), 북한산(北漢山)	
북한산의 명칭과 연혁	3
북한산의 역사 및 문화	5
북한산성 축성에 대한 시대적인 배경	7
북한산의 자연생태	
지형	11
식생과 동물상	13
북한산성의 경승과 명소	
산영루(山映樓)	17
민지암(閔漬岩)	18
탐방로(探防路)	18
북한산성의 사적과 문화재	
북한산성	21
행궁(行宮), 장대(將臺), 성랑 및 창고	23
북한치영(北漢緇營)과 사찰	25
중흥사지(重興寺址)와 태고사(太古寺)	26
폐사지(廢寺址)	27
총융사선정비(總戎使善政碑)와 승도절목(僧徒節目)	29
부 록	
한국의 산성	31
성곽건축	35



서울의 진산(鎭山), 북한산(北漢山)

북한산의 명칭과 연혁

1395년 12월 조선 태조 이성계가 신축된 경복궁에 들게되니 개국공신 정도전은 새 도읍의 만년태평을 기원하는 가사를 지었다. 그 내용을 담은 「악장가사」에 북한산을 삼각산이라 기록하고 있다. 서울의 진산인 북한산을 최근에 이르기까지 삼각산으로 불려왔다.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북한지』에 따르면 삼각산은 인수·백운·만경 세 봉우리가 우뚝 솟아 세 개의 뿔과 같이 생겨 붙여진 이름이며, 화산(華山)·화악(華嶽)이라고도 하며, 삼국시대에는 부이악(負兒岳)이라고 하였다.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평강현의 분수령(分水嶺)에서 잇달은 봉우리 와 겹겹한 산봉이 높고 낮게 빙빙 둘러서 양주 서남쪽에 이르러 도봉산이 되고, 또 삼각산이 되어 서울의 진산(鎭山)이 된다. 고구려 동명왕의 아들 비류와 온조가 남쪽으로 나와서, 한산(漢山)에 이르러 부이악에 올라가 살 만한 땅을 찾았다는 산이 곧 이 산이다.

부이악은 문헌에 보이는 북한산의 가장 오랜 이름으로 삼각산의 일봉인 인수봉의 뒤에 튀어



인수봉

나온 바위가 꼭 어머니가 어린애를 업고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이를 한자명으로 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수봉의 모양이 그 밑에서 보면 남근과 비슷하여 불알의 음독이라는 설과 부아는 불뿔(火山)의 불을 말한다는 설도 있다. 부아가 불의 표기이므로 부아 불-火-華로 바뀌어 화산이 되었다는 풀이도 있다. 또 북한산의 순수한 이

름은 산을 신처럼 숭배해 온 사람들에게 의해 산신령의 산이란 뜻으로 ‘부 루칸모로’라고 했다는 설도 있다.



백운대

한편 삼각산이 ‘火山’이기 때문에 ‘火’를 피해서 ‘華’로 썼다고도 하지만 이준오·오순 등의 삼각산을 읊은 시문을 보면 종종 부용이나 연꽃을 연상하여 지은 글들이 많다. 이로 보아 이 산은 세 봉우리가 연꽃이 핀 것과 비슷하다 하여 불교인들이 연화산(蓮華山)의 준말로 화산이라 쓴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고려사』의 삼각산 승가굴의 기록으로부터

이색·김시습을 비롯한 조선시대 문인들의 기록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이름은 삼각산이다. 삼각산은 개성이 서울이었던 고려시대 북쪽에서 바라본 산모양 때문에 생긴 이름이다. 지금도 경기도 일산이나 원당 등에서 서울쪽을 바라보면 인수봉·백운대·만경대 세 봉우리가 삼각을 이루어나란히 공중에 툭 튀어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까닭에 삼각산이라고 부른 것이다. 이러한 삼각산은 고려와 조선 시대에 일반화된 이름이다.

한산이란 이름은 『삼국사기』 『고려사』 『세종실록지리지』 등에 보이며 이는 한강·한수·한양·한성 등의 지명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의 옛 이름은 한산·북한산·북한산성·북한성·한양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고구려가 서울지방을 점령하고 북한산군(北漢山郡)을 설치하고 북한성에 남평양(南平壤)이란 별도(別都)를 두었던 내용과 비교해 볼 때 북한산은 처음부터 산이름으로 붙여진 것이 아니라 서울 지방의 옛 이름인 한산의 북쪽이라는 지역을 가리킨 지명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임진왜란 때 왜군이 명나라 군대에 쫓기어 남하하자, 선조는 왜군의 재북상에 대비, 반격할 만한 거점을 찾기에 이른다. 당시의 병조판서인 이덕형이 삼각산 일대를 답사하고 『중흥산성간심서(中興山城看心書)』라는 보고서를 내었는데, 여기에 ‘북한산’이란 이름이 자주 등장한다. 또 이 글에 “중흥의 형세는 참으로 하늘이 만든 험난한 곳입니다. 만일 여기에 성을 쌓으면 서울과는 포리가 돼 서로 호응할 수 있어 적이 비록 많은 군사로 침범해 와도 또한 우리를 어찌할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되어있어 북한산이 ‘中興’과 같은 의미로 사용됐음을 알 수 있다. 중흥은 북한산 안에 중

흥사(重興寺)가 있고, 그 곳을 중흥동(重興洞, 中興洞)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일 것이다.

그후 병자호란으로 심양에 인질로 갔다온 효종은 북벌론을 제기하고 송시열에게 북한산 축성을 부탁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숙종 때에 이르러 북한산성을 축성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숙종 37년(1711) 북한산성을 축성하자 북한산성의 약칭으로 북한 북성과 북한성 등으로 썼지만 북한산이라고 쓰지는 않았다. 항상 삼각산 안에 북한산성이 있다고 생각했었다.



만경대

예를 들면 이익(李瀾)의 문집에 「유삼각산기(遊三角山記)」와 「유북한기(遊北漢記)」가 실려있다. 여기서 삼각산과 북한산이 동일한 산을 가리킨다면 왜 하나는 삼각산이라 했고 하나는 북한이라고 했을까. 「유북한기」의 북한은 북한산이 아니고 북한산성의 약칭인 것이다. 또 최남선도 북한산을 ‘한성의 옛이름’이라고 풀이하고 있어, 산 이름은 삼각산으로 지칭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렇듯 최근에 이르기까지 삼각산이란 이름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조선 후기 북한산성이 축성되고 그 내용을 기록한 『북한지』가 출간됨으로써 북한산이란 이름이 자연스럽게 산 이름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많은 문화재의 소재지 이름과 국립공원의 이름으로 ‘북한산’이 사용되어 현재에는 삼각산에 대신하여 북한산이 공식 이름으로 생명력을 가지고 불리고 있다.

북한산의 역사 및 문화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 한강유역을 차지하는 세력이 한반도를 경영하였다는 역사적 필연성이 우리 역사의 근간에 흐르고 있다. 이러한 한강유역은 오늘날 서울의 중심을 흐르는 한강하류 일대와 북한산으로 표현되는 백두대간에서 뻗은 한북정맥이 서해안으로 뻗으면서 그 산줄기가 자리잡은 곳이다. 따라서 백제 시조 온조왕이 부아악에 올라 도읍지를 선택한 이래 북한산은 우리 민족

사의 중심무대가 되었다. 북한산이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한 전략적인 요새지이기 때문이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북한산성은 삼국시대에 백제의 토성으로 제4대 왕인 개루왕 5년(132)



북한산성 성곽

에 축조한 이래 370년 13대 근초고왕 때에 3만의 대군을 거느리고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국원왕(故國原王)을 전사케 하였다. 이때는 백제의 군사력이 한반도에서 가장 강성한 시대였다. 그 후 고구려 20대 장수왕(長壽王)은 475년 백제 수도 하남위례성을 칠 때 북한산성에서 7일 7야의 대접전을 전개하

였다. 결국에는 수도 하남 위례성도 함락되게 되었고 개로왕까지 전사하는 비운속에 도읍을 웅진으로 옮기게 되었다. 이때는 고구려의 남진정책으로 한반도를 고구려 군사력이 지배하였던 시대이다. 그 후 신라와 백제가 연합하여 한성지역의 고구려군과 싸웠는데 553년(진흥왕14) 신라군은 한성지역을 점령하고 북한산성을 장악하였다. 555년 10월 신라의 진흥왕은 친히 북한산성을 순시하고 신라군의 전공을 높이 치하하였던 것이다. 이로 인하여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가 건립되게 된 것이다. 이때부터 신라의 영토는 북한산성을 위시하여 함경도의 황초령과 마운령까지 확장되었으며 562년에는 가야국을 멸망시켰다. 661년 5월 신라군과 고구려군간의 북한산성 전투는 신라 삼국통일의 성패를 좌우하는 역사적 전투였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데 있어서도 북한산성의 전략적 가치는 일급의 요새였던 것이다.

고려시대에 들어와서도 북한산의 중요성은 여전하였다. 11세기 초 거란의 침입이 있자, 현종은 고려 태조의 재궁(임금의 관)을 북한산 향림사로 옮겨오고, 성을 증축하였다. 고종 19년(1232)에는 이곳에서 몽고군과의 격전이 있었고, 우왕 13년(1387)에는 왜구에 대한 방비책으로 최영장군을 보내어 노적봉을 중심으로 중흥동 석성을 수축하였다. 이 성은 조선 후기까지 중흥사 북쪽에 성문터와 더불어 남아 있었다.

또한 고려시대 남경이 설치되면서 삼각산은 북쪽을 등지고 남쪽을 향해 있는데, 그곳에서 시

작한 산맥이 3중, 4중으로 산이 산을 등져 명당을 수호하고 있다 하여, 삼각산에 의지하여 도읍을 세우면 9년만에 4해가 조공하여 올 것이며, 이 땅이야말로 태평성대를 누릴 땅이라 하였다. 따라서 숙종 4년(1099)에는 왕이 직접 왕비와 원자 그리고 신하들과 대각국사 의천을 거느리고 삼각산 승가굴을 거쳐 양주지방을 행행하여 도읍지로서의 지형을 살피기도 하였다. 그후 충렬왕은 삼각산 문수굴에 행차하는 등 고려시대 북한산은 남경 개창과 더불어 오행사상(五行思想)과 지리도참사상을 바탕으로 매우 중요시되었다.

북한산 둘레에 술한 암자를 세운 수대(秀臺), 탄연(坦然), 도선(道詵) 등의 스님들이 북한산에 올랐고, 이성계도 왕이 되기 전에 북한산을 올랐다. 또한 무학대사가 북한산에 올라 나라 일을 생각했다 하여 그가 오른 만경대를 국망봉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고려시대에 이미 국망봉이란 이름이 있어 무학의 국망조망설(國望眺望說)은 후세에 지어진



보 현 봉

속설로 보인다. 또 세조는 보현봉을 즐겨 올랐다 한다. 보현봉은 세종의 명으로 세조와 안평대군 그리고 다른 유신들이 올라가 그곳에서 해의 출입을 관찰했던 곳으로 유명하다.

북한산성 축성에 대한 시대적인 배경

북한산성 축성에 대한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임진왜란과 이괄의 난, 병자호란을 겪고 난 뒤 조정에서는 앞으로 이와 같은 난이 또 일어나면 어디로 피신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크게 고심하였다. 도성을 지키지 못하고 백성을 버린채 임진왜란 때에는 서북 지방으로, 이괄의 난 때에는 충청도 공주까지 정처없이 피란길을 떠나는 수모를 겪었으며 병자호란 때에는 미처 강화도로 피하지 못하고 남한산성에 들어가 항쟁을 하다가 치욕을 당하였다.

국난을 당할 때마다 도성을 한번도 방위하지 못한 조정에서는 그동안 믿었던 강화도와 남한

산성도 위급할 때에는 신속한 피란처가 되지 못한다는 판단 아래 도성과 가까운 곳으로 새로이 모색한 곳이 바로 북한산이었다.

북한산에 대한 축성 논의는 조선 선조 때부터 기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임진왜란이 끝나 갈 무렵인 선조29년(1596) 종전협상이 지지부진한 동안 왜의 재침을 우려, 북한산에 성을 쌓고자 하였다. 선조는 삼각산 아래 옛 중흥동이 고려 현종(顯宗)의 피란처임을 상기시키며 이곳의 형세가 좋다면 산성을 백성들의 안전한 피란 장소로 삼도록 하였다.

병조판서 이덕형(李德馨)이 현지 답사 뒤 ‘천험만전지세(天險萬全之勢)’임을 보고하며 지금까지 시설이 없음을 한탄하였으나 예상 침투로에 있는 남한산성의 수축론에 밀려 검토에 그치고 말았다. 다시 축성론이 제기된 것은 병자호란 때 인질로 끌려가 쓰라린 체험을 몸소 겪은 효종(孝宗)에 의해서였다. 효종은 청에 대한 복수의 일념으로 국방력을 튼튼히 함과 동시에 “효묘기해유 밀물지교(孝廟己亥有密勿之教)”라고 했듯이 북한산성을 수축하고 조지서(造紙署) 골짜기를 막기 피란 장소로 삼을 것을 비밀리에 송시열(宋詩烈)에게 지시하였으나 백성을 부리기 어려웠던 상황에다 갑작스런 죽음으로 재차 논의에만 그쳤다.

북한산성 축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숙종 때에 다시 이루어졌다. 숙종 36년 가을에 접어들면서 축성 논의가 재개되었는데, 당시 중국의 연해에 해적의 출몰이 심하여 청이 이에 대비하도록 자문을 급히 보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북한산성 축조에 강한 의지를 펼쳐 그 37년(1711) 4월부터 대대적인 축성공사를 벌이게 하였다.

북한산성 축성공사는 도성 수비를 맡고 있던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의 삼군문에서 맡아 구역을 나누어 축조하였는데, 훈련도감은 수문 북측에서 용암봉까지, 금위영은 용암봉 남측에서 보현봉까지, 어영청은 보현봉에서 수문 남측까지 각각 시행하였다. 공사는 급속히 진행되어 6개월 만인 10월에 백운봉·만경봉·용암봉·문수봉·의상봉·원효봉·영취봉 등 북한산의 연봉을 연결하는 길이 21리 60보에 이르는 석성이 완성되게 되었다.

영조 21년(1745) 팔도도총섭 성능은 북한산성에 관련된 지지(地誌)로서 『북한지(北漢誌)』를 편찬하여 오늘에 전함으로써, 북한산성 연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북한지』는 주로 북한산성과 이와 관련된 것을 연혁, 성지(城池), 궁전, 사찰, 고적 등 14개 항목으로 나누어서 기록하였는데 먼저 북한산의 지세와 북한산성의 윤곽·사찰·도로·창고·문루·장대 등이 표시된 「북한도(北漢圖)

」를 그린 그림이 있고, 책 끝에는 성능의 발문이 있다.

이후로도 북한산성에 대한 수비 보완대책으로 공사가 계속되었다. 다시 산성 안의 허리 부분을 차단하는 중성(重城)을 축조하여 바깥은 외성으로 하고, 안쪽은 내성으로 하여 모든 시설물이 소재한 내성은 어떠한 위급한 사태가 있어도 사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검정 서편에는 탕춘대성(蕩春臺城)을 추가로 축조하여 배후에서 북한산성과 도성을 완벽하게 지키고자 하였다.

북한산성의 관리는 숙종 38년 경리청(經理廳)을 신설하여 맡게 하였는데, 영의정이 도제조를 겸하고 당상은 제조라 하여 삼군문의 대장을 겸하게 하였다. 그 뒤 영조 23년(1747) 경리청을 폐지하고, 산성관리 업무를 총융청(摠戎廳)이 전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위급한 상황에서는 종묘 사직과 백성을 위하여 도성을 꼭 지켜야 한다는 것으로 국방정책이 바뀐에 따라, 북한산성은 고종 말기까지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대한제국 때에는 의병전쟁 등 혼돈한 시대상황 속에서 일본군 헌병대가 주둔하는 등 북한산성 내의 사찰 피해가 극심하였다. 더욱이 '북한사태'로 일컫고 있는 1915년 8월의 집중호우로 돌로 된 성벽만 남겨 놓은 채 행궁과 동장대 등 산성 안 시설물의 대부분이 소멸되어 버렸다.

일제는 이곳에 군대만을 주둔시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북한산의 정기를 끊어 놓으려는 정치 심리전의 발상으로 노적봉·백운대·만경대 등의 정수리에 신주(눗쇠)로 만든 쇠말뚝을 박아 놓았다. 1980년대에 들어서야 「우리를 생각하는 모임」의 몇몇 뜻 있는 사람들에 의해 백운대의 쇠말뚝 11개가 뽑혀지기 시작하였는데, 이 쇠말뚝이 박혀진 1920·1930년대를 전후하여 하나의 산국을 이뤘던 북한산은 국운이 쇠잔해지면서 폐허의 내리막길로 접어들었다.



대 동 문

또한 6·25 전쟁 당시 수도 서울을 지키지 못한 무명용사가 북한산 기슭에서 전사하기도 하였다. (가매장되어 백운산정 앞에 위령비를 세웠던 무명용사 시신 2구는 1995년 6월 22일 대전

국립묘지에 안장됨) 그리고 북한리 주민들에 의하면 1·4 후퇴 직전에 미군이 놓은 덫에 빠진 인민군 천수 백 명이 북한산성 속으로 들어갔다가 몰사했다고 한다.

1968년에는 북한의 무장공비 김신조 일행이 이 산성 기슭을 따라 그 삼엄한 경계를 뚫고 청와대까지 침투한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었다.

이렇듯 청와대나 경복궁으로 연결되는 북한산의 산줄기는 민족사의 수난을 같이 겪었다. 그러나 수많은 피해를 입고 방치되어 온 북한산성은 서울시에서 그 복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그 면모를 일신하고 있다. 우선 1단계 사업으로 1991년부터 1994년까지 대남문·대성문·대동문 등 3개 성문과 성곽 450m를 복원하였고, 보국문의 정비공사가 완료되었다. 이어 2단계 사업으로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사업비 총 165억원을 들여 동장대 복원을 비롯하여 5개 암문과 성곽 1.3km를 연차적으로 복원하고 있다.

북한산은 서울에 근접해 있으면서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사적지가 풍부하며, 국민의 보건·휴양·교화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자연공간으로서 1983년 4월 2일에 도봉산을 포함한 서울시 관할지역 39.71km², 경기도 관할지역 38.74km² 총 78.45km² 지역이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대 성 문

북한산의 자연생태

지 형

서울의 북쪽 경계에 높이 솟아 경기도 고양시에 걸쳐 있는 해발 836m의 북한산은 서울의 진산이다. 한북정맥이 의정부 북쪽의 불곡산을 지나 뺀어난 바위의 미를 자랑하는 도봉산을 빚고 다시 남하하여 우이령을 거쳐 노고산으로 빠져나갈 때 다시 그 남쪽에 커다란 바위의 성채를 세웠으니 그것이 곧 북한산이다.



노적사-노적봉

산이 국토의 골격이라면 강은 혈관이며 숲은 아름다운 모발이고 들은 풍요로운 근육에 비유되듯이 북한산과 서울의 유기적 관계는 그 어떤 도시환경과도 비교될 수 없는 심미적인 유현미를 내포하고 있다. 서울외곽은 물론 수도권에서도 우대한 자태를 시지각할 수 있는 북한산은 그 지형적 맥락에서 부터 백두대간의 한북정맥에서 연유하

고 있으며, 지질연대로 보아 중생대의 유라기에 화강암의 지반이 상승과 침식을 되풀이하며 노출되면서 그 절리와 표면이 장구한 세월동안 풍화되어 이루어 놓은 대자연의 걸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이 자연환경 속에서 삶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가장 기본조건이 높은 산을 등지고 앞쪽에 탁트인 시야와 큰물줄기가 흐르는 곳을 가장 살기 좋은 터전이라 하여 이른바 배산임수라고 하는 것은 그 해석방법이 틀릴 뿐 동·서양이 같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북한산의 지형적인 위상은 북에서 남으로 이어지는 종주능선을 주축으로 우이령을 경계로 하여 북쪽으로는 도봉산지역이 자운봉(739m)을 주봉으로 만장봉(718m) 선인봉(708m)이 걸출한 암봉군을 형성하여 뺀어난 형태미를 표징하고 있어 예로부터 경기지역의 소금강이라 불릴 정도로 수려한 산세를 이루고 있고, 남쪽의 북한산지역은 서울의 지붕이라 할 수 있는 북한산의 최고봉인 백운대(836m)를 주봉으로 인수봉(810m), 만경대(799m)가 삼각의 위용으로 치솟아 웅

대, 무비한 암봉으로 주변 암봉이 모두 32개 산봉우리로 이루어졌다.

태조 이성계가 북한산을 진산으로 삼아 한양에 도읍을 정하였다. 그 이전 북한산 아래의 우이·도봉동 일대는 북한산 연봉을 뒤에 지고, 동쪽의 불암산을 마주 대한 사이에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어 지리적 조건이 고대국가의 도읍지가 될 만도 하다. 뿐만 아니라 고려 숙종 6년(1101)에 남경 건설을 계획하며 대신과 풍수지리가 들을 지금의 서울 부근으로 보내서 남경을 건설할 만한 곳을 찾아보게 하였는데, 이때 그들이 처음 찾아 본 곳이 바로 동대문 밖의 노원역, 도봉산 아래의 해촌 등지였다. 그런데 노원은 곧 우이동의 동쪽 지금의 상계동과 중계동 부근이요, 해촌은 곧 우이동의 북쪽 지금의 도봉동 부근으로 이 지역 산수지리가 도읍의 적지로 계속 주목되었다.

북한산의 옛 이름 삼각산은 산의 최고봉인 백운대를 위시한 인수봉·만경대(국망봉)의 높은 세 봉우리가 3개의 뿔처럼 높이 서 있으므로 하여 불리어진 것인데, 세 봉우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백운대는 표고 836m로 온통 큰 바위로 이루어졌는데 정상에 오르면 사방이 탁 트여서 전망이 무한히 넓고 또 봉 위에는 많은 사람이 앉을 수 있는 넓은 암반이 있기도 하다. 동북쪽으로는 산줄기가 서로 통하는 도봉산의 연봉이 있고, 남쪽으로 눈을 돌리면 한강 건너로 옆으로 뻗어나간 남한산을 바라볼 수 있으며, 서남쪽으로는 관악산과 인천 앞 바다가 한눈에 들어온다. 백운대 동쪽에 우뚝 솟은 인수봉도 온통 바위 하나가 하늘높이 솟아 기이한 경관을 이룬다. 동남쪽에 솟은 국망봉은 일명 만경봉으로 이곳에 올라서면 산하 만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또 국망봉 서남쪽에는 임진왜란 때 왜적들이 노적더미로 의심하였다는 전설이 있는 노적봉이 우뚝 솟아 있어 함께 절경을 이루기도 한다.

북한산의 세 봉우리 북쪽으로는 영봉·상장봉이, 남쪽으로는 석가봉·용암봉·시단봉·보현봉·문수봉 등이 솟아 있으며, 다시 문수봉에서 북서쪽으로 뻗은 나한봉·나월봉·증봉·용혈봉·용출봉·의상봉 등의 줄기가 백운대 서쪽 줄기인 영취봉(일명 염초봉)·원효봉 줄기와 대서문의 수구에서 만난다. 승가봉·비봉·향로봉은 문수봉에서 또 하나 서남쪽으로 뻗은 길줄기에 솟아 있다. 특히 보현봉은 남쪽으로 두 줄기를 뻗고 있는데 그 중 남동쪽으로 뻗은 줄기가 형제봉·구준봉을 거쳐 북악산으로 이어진 주맥이 된다.

북한산 일대의 지질기반은 중생대 말에 관입한 대보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맑은 복숭아색을 띠고 있는데, 장구한 세월에 걸친 지반의 상승과 침식 작용으로

지표에 노출된 뒤 다시 그 절리와 표면의 풍화작용으로 오늘날과 같은 산모양이 된 것이다. 따라서 그 높이에 비해 산세가 험준하고 경사가 심하며 암벽으로 된 바위 봉우리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각 암봉사이에 흐르는 대표적인 계곡으로는 정릉계곡·구천계곡·소귀천계곡·육모정계곡·효자리계곡·삼천사계곡·세검정계곡·진관사계곡·구기계곡·평창계곡·산성계곡 등이 있으며, 이들 북한산에서 발원한 계류는 중랑천·창릉천·불광천·모래내 등을 이루어 한강으로 유입된다. 북한산 주봉인 백운대에서 영봉으로 이어지는 우이능선길은 바위가 사람의 발길에 움푹 패인 새플로라이트(바위침하)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어 돌층계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다.

능선의 계곡화 현상도 극심하다. 백운대에서 산성 주능선을 타고 남쪽으로 내려와 보현봉 아래 해발 550m지점을 보면 능선이 한길 가랑 파여 있다. 이것이 비가 내릴 때마다 물길을 만들어 계곡으로 둔갑하였다.

식생과 동물상



신갈나무

북한산 숲의 식생은 냉온대 중부에 속하며 우점종은 신갈나무이다. 북한산국립공원을 등산할 때 능선부에 가까워지면 많이 볼 수 있는 나무가 신갈나무이다. 신갈나무는 소나무 숲 속에서 자라게 되면 소나무와 경쟁을 하게 되는데, 보통 신갈나무가 소나무를 이기고 신갈나무숲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나 신갈나무도 서어나무 혹은 까치박달나무와 경쟁을 하게 되면 결국 지게 된다.

그러나 오랜 세월동안 지면이 깎여 커다란 암벽들과 바위가 노출된 많은 소능선들에는 아직도 소나무가 많이 나타난다.

당단풍은 신갈나무의 우점도가 높은 해발 350m 이상에서 많이 나타나며, 진달래는 북한산 전역에 고루 분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단풍나무류는 종류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단풍과 당

단풍이 있고 잎이 갈라진 개수로 쉽게 구별된다. 잎이 5~7개로 갈라지면 단풍나무, 9~11개로 갈라지면 당단풍나무이다. 잎이 5개로 매끈하게 갈라지는 것이 고로쇠나무인데 이 나무도 단풍나무의 일종이다. 그 외에 가을에 붉게 물들어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자기·복장나무·신나무·시달나무 등이 단풍나무류에 속한다.



당 단 풍

해발고와 지형에 따라 나타나는 주요 식물군락은 지형 조건에 따른 토양 집적 양상에 따라 식생의 분포가 나타나는데, 낮은 지대의 계곡부에는 느티나무와 귀룽나무군락이 발달해 있는데 특히 계곡 사이사이에 자생하는 산철쭉은 붉은 자주색 빛깔로 주위의 경관을 한층 아름답게 한다. 산철쭉은 보통 낮은 지대에서 진달래꽃이 진 후에 진달래보다도 진한 붉은 자주빛으로 잎과 함께 피어나며 윗 꽃잎 안쪽에 자주빛이 뚜렷하여 진달래와 구별된다.

토양이 발달한 사면부에는 신갈나무군락, 사면부의 암반이 노출된 지역과 암벽이 노출된 능선부에는 소나무-노간주나무군락, 높은 지대의 능선부에는 개박달나무와 양지꽃 군락이 출현한다.

암반 노출지에서는 생육지의 특수 입지화로 소나무가 주로 출현하는데 이 소나무림은 소위 토지 극성상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암반 노출지에서의 소나무숲의 형성은 화강암벽 틈에서의 식생 발달 과정과 같이 바위틈이 형성되고 거기에 유기물이 쌓여 이끼식생이 형성되며 다시 실새풀·돌양지꽃 등의 초본류가 침입하고 마지막으로 소나무가 들어오는 일련의 천이과정을 거침으로써 이루어진다.

산성과 성문을 따라 이루어진 식생의 변화를 감상할 수 있다. 산성을 따라 소나무가 연속적으로 출현하며 산성문 주위에 나타나는 느티나무를 볼 수 있다. 그 외에 산의 아랫부분에서는 6·25전쟁 이후 황폐된 산지를 복구하기 위하여 조성된 일종의 사방조림지를 볼 수 있다. 리기다소나무·은수원사시나무·아까시나무·물오리나무 등 여러 종류의 외래 수종이 식재되어 있지만 차츰 자생수종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식목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북한산국립공원은 4계절 다양한 식물이 분포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숲의 형태는 신갈나무와 소나무가 각각 어울려 사는 모양이다. 신갈나무숲과 소나무숲이 그 다음으로 많고 그 밖에 상수리나무 · 산벚나무 · 당단풍 등의 키 큰 나무와 작살나무 · 병꽃나무 · 노린재나무 등의 키 작은 나무 그리고 희귀식물로 미선나무군락 · 나도국선나무 · 백선나무 등이 분포한다. 그리고 갖가지 초본과 더불어 우리 고유의 식물을 찾아 볼 수 있다. 초본으로는 노랑제비꽃 · 제비꽃 · 금붓꽃 · 애기붓꽃 · 노루오줌 · 복수초 · 앵초 등 4계절 골고루 꽃을 피우고 있다.

한편 북한산국립공원에서 관찰된 조류는 약31과 60여종이며, 이는 우리나라 조류 430종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빈약한 편이다. 북한산에 서식하는 새는 까치, 멧비둘기, 어치, 박새와 같은 텃새가 가장 많고 여름철새인 피꼬리, 후투티, 삿꾸기와 겨울철새인 야진이, 황여새, 말뚝가리 등이 있다. 그 외에 나그네새인 지빠귀, 울새, 솔딱새 등이 있다. 양서류는 파충류와 같이 개구리 · 도롱뇽 · 살모사 등이 많이 서식하고 있으며, 맹꽁이, 참개구리, 두꺼비 등은 저지대에 무당개구리, 산개구리등은 비교적 고지대에 분포하고 있다. 최근에는 등산객의 취사금지 등으로 물이 맑아져 개구리의 먹이인 담수어류가 증가됨에 따라 개체수가 증가되고 있는 듯하다. 포유류는 너구리 · 족제비 · 다람쥐 · 청솔모 · 삵 · 오소리 등 20여종의 포유류를 관찰할 수 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 중 북한산국립공원에서 볼 수 있는 동물은 흑비둘기 · 솔개 · 매 · 부엉이 · 황조롱이 · 큰소쩍새 등이 있다.



천연기념물 제324호 수리부엉이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꼬리 달린 양서류에는 현재 도롱뇽과 꼬리치레도롱뇽 2종뿐이다. 그런데 두 종 모두 1993년도에 환경처가 지정한 보호 대상종이다. 꼬리치레도롱뇽은 감소 추세종이며, 도롱뇽은 한국 특산종으로 지정되었다. 서울에는 오염에 약한 꼬리치레도롱뇽은 보이지 않고, 도롱뇽만이 북한산의 감추어진 계류에서 관찰된다. 그리고 북한산국립공원 계곡에 서식하는 어류는 대부분 버들치이다.

버들치는 2급수에 사는 피라미와 달리 1급수와 2급수의 상류 지점의 깨끗한 물에 산다. 수리부엉이는 비교적 보기 드문 텃새로 암벽과 바위산에 주로 산다. 주로 밤에 활동하며 꿩 · 쥐 · 토끼 · 개구리 · 뱀 따위를 잡아먹는다. 북한산은 바위가 많고 민가가 없는 높은 곳에는 맑고 풍부한 물이 흘러 수리부엉이의 서식 장소로 적합한 지역이다. 다만 최근 수리부엉이의 먹이가 되는 동물이 점차 줄어 수리부엉이의 삶터가 위축되고 있다. 현재 수리부엉이는 천연기념물 제324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북한산국립공원은 대기오염과 토양 산성화, 그리고 행락객들에 의한 훼손 등 인간 간섭으로 숲이 병들어 가고 있을 뿐 아니라 동물들도 자취를 감추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정상적인 중부 온대림의 경우 소나무에서 신갈나무로, 다시 서어나무로 숲이 변천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산국립공원도 송추지역에 10~20년 생의 서어나무들이 이미 전역에 뿌리를 내려 있으며, 극상종인 서어나무가 많이 발견될수록 숲이 극상 즉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북한산성의 경승과 명소

산영루(山映樓)

『북한지』의 누관(樓觀) 조를 보면, '향해루는 중흥동 입구에 있었는데 계곡을 가로질러 언용교(鴈龍橋)라는 작은 다리가 있고 그 위에 2층의 누각을 세운 것인데, 승 성능이 세웠다. 산영루는 중흥사 앞에 옛날 작은 다리를 덮고 누각을 세웠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산영루는 충용사선정비가 서있는 앞쪽 계곡일대는 '무릉도원'이라 불리었으며 옛 사람들도 이곳을 제일 경치가 좋은 곳으로 손꼽았다.



산영루터

지금 남아 있는 흔적으로 장주형 초석 10개가 있을 뿐이다. 이곳을 주민들은 산영루터로 알고 있으며, 누각은 계곡을 향해 비스듬한 암반에 지은 까닭에 계곡 쪽은 길이가 길고 비석이 있는 뒤쪽의 길이는 짧다. 이곳에서 계곡을 내려다보면 넓은 암반에 맑은 물이 흐르고 바위 웅덩이가 연이어 있어 경치가 과연 일품이다. 진달래로 붉게 물든 계

곡, 가을 단풍을 뚫고 흐르는 은빛물하며 눈 덮인 겨울은 더욱 멋지다. 가히 선경이라 할 만하다.

산영루가 정확하게 언제 지어졌는지는 모르나, 산성을 축성할 때 지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지를 쓸 당시(1745년)에는 누각이 허물어져 있었다고 했으니 그 20~30년 후에 다시 지어진 듯 하며, 1934년 발간한 『경성부사』에는 1907년에 찍은 산영루의 사진이 실려 있어 그 옛날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이로 보아 산영루는 북한산성에 큰 홍수가 있었던 1915년 무렵까지는 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학자 이덕무가 쓴 「북한산성유람기」에 이곳 산영루를 '중흥사에서 비스듬히 걸어 서쪽으로 가면 숲이 하늘을 가리고 시냇물이 팔팔 흐른다. 그 모습이 흡사 갯 같기도 하고 배갈기도 한 큰

돌이 많은데 쌓이고 쌓여 대(臺)를 이룬 것도 세검정과 비슷하나 더욱 그윽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일대는 깊은 계곡의 폭포수와 넓은 암반 등 주위의 경관이 뛰어나 그 아름다운 자태를 음미해 볼 만하다. 1910년경 이곳을 방문한 독일인 신부는 정자 위에서 '아름다운 조선'이라는 감탄사를 연발했다고 한다. 건너편 암벽에는 '按使沈相薰' '金聲根' '摠戎使金公箕錫清德善政碑' 등 여러 글자가 새겨져 있어 옛날 이곳을 찾는 선인들의 발길이 잦았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민지암(閔漬岩)

북한산성 대서문에 들어서 왼쪽으로 난 소로를 따라 내려가면 큰 계곡이 나온다. 이곳이 북한산성의 수구로 수문이 있던 곳이다. 여기서 산성쪽 1km에 이르는 지역의 경관은 옛부터 이렇나 있었다. 계곡의 물은 맑고 돌은 더욱 희다. 골짜기가 모두 바위와 절벽을 이루고 있다. 수문에서 성안쪽으로 1백걸음쯤 오르면 위쪽은 처마같고 밑은 평상같이 묘하게 생긴 바위가 있다. 이 바위를 민지암이라 한다. 명산을 두루 노닐었던 고려 충숙왕 때 명재상 민지가 소요하던 곳이라 하여 이런 이름이 붙었다.

이덕무는 「북한산성유람기」에서 '북한산성 서문 가까이 물과 돌이 만나는 곳에 임하여 큰 누각이 있다. 바람이 이는 거센 여울과 소나무를 훑는 바람소리, 텅 빈 가운데 음운이 생기니 췌췌하고 빠르게 흐르는 여울물 소리는 비오는 듯하여 마주하여 말하여도 음성을 분별할 수 없다. 이 절은 가장 낮는데 있지만 유독 깨끗하여 시원한 것으로 소문이 났다'고 썼다.

지금 바위 옆으로 음식점이 하나 있고 음식점 뒤로 잡초 우거진 빈터가 있는데, 이곳이 민지의 별장터였다. 산성을 쌓을 때인 1711년에 이 자리에 절을 짓고 민지의 이름을 따서 처음에는 민지사라고 했다가 얼마 후 서암사(西岩寺)라고 고쳐 불렀다.

탐방로

북한산의 주요 32봉을 포함한 북한산성은 14개의 성문을 가지고 있었다. 이 성문은 서울과 고양시 등 성밖에서 북한산 중심인 행궁과 중흥사지(重興寺址)로 통하는 길목으로 시민들이 찾는

주요 탐방로가 된다.

인구 1천만 서울시민을 포용하는 북한산은 성곽을 쌓기 이전에 이미 천연의 산성이다. 온갖 형상의 암봉과 암벽으로 연결되어 있는 대자연의 성채이다. 북동쪽 하늘을 버티고 솟아 있는 백운대·인수봉·만경대·노적봉. 그리고 북서쪽의 원효봉·염초봉. 남서쪽의 문수봉·나한봉·증취봉·용출봉·의상봉의 험준한 산능선이 연결되어 삼각형의 요새를 만들어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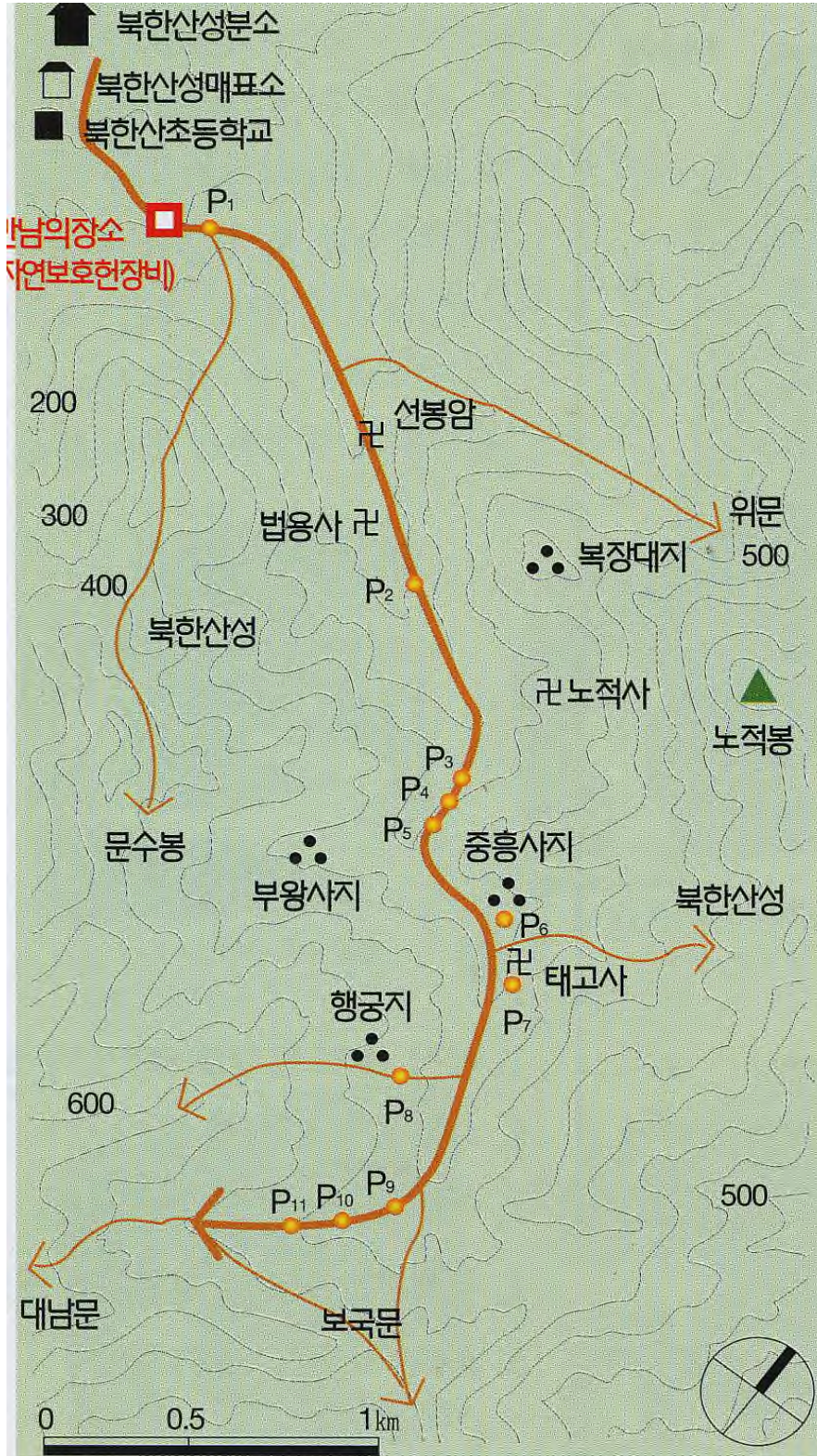
따라서 산성의 성곽을 따라 쉽게 갈 수 있는 곳도 많이 있지만, 암벽등반 기술이 없으면 오르지 못할 곳도 있다. 산성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등산로는 서울쪽의 우이동계곡·정릉계곡·구기동계곡으로 오르는 길과 고양시 북한동의 북한산성 계곡으로 오르는 길이다. 이 두방면의 탐방로는 오르는 길과 내려오는 길로 이어진다.

이중 가장 평탄하게 산행할 수 있는 길은 구파발을 돌아 북한동쪽 북한산성 입구에서 대서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여기에서 북한산 주능선쪽으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시작된다. 성내에서 가장 수려하고 긴 계곡을 끼고 중성문을 지나서 노적봉 우측으로 중흥사지의 앞길을 지나 대남문이나 대성문 또는 정릉쪽 보국문으로 올라가는 탐방로가 일반인이 많이 이용하는 코스이다.

중흥사지에서 태고사를 지나 대동문이나 용암문으로 갈 수도 있다. 성곽이나 성문이 있는 능선에 올라서면 서울시 쪽으로 내려오는 길을 곳곳에서 찾을 수가 있다. 또 백운대쪽으로 원효능선과 노적봉 사이 골짜기 길로 대동사와 약수암을 지나 백운대와 만경대 사이에 있는 위문에 이르는 길이 있다. 위문에서 백운산장과 깔딱고개를 지나 우이동으로 내려가는 하산길과 이 코스의 역코스는 북한산을 찾는 가장 많은 탐방객들이 다니는 길이다.

환경해설 탐방로

역사, 문화 탐방로 (북한산성 코스)



- 탐방로의 개념 : 옛것과 호응하는 역사의 오솔길
- 탐방거리 : 약 4Km
- 소요시간 : 4시간

- P1 대서문
- P2 중성문
- P3 누각터
- P4 승도절목
- P5 총융사선정비군
- P6 부왕사지
- P7 태고사
- P8 행궁지
- P9 어영청
- P10 금위영
- P11 훈련도감

북한산성의 사적과 문화재

북한산성(北漢山城)



북한산성 성곽

기암절벽의 높은 봉우리들로 이루어진 북한산은 지금의 수도 서울의 방위 요충지였다. 따라서 산중에는 전부터 백제시대의 옛 성이 있었다고 전해지지만, 지금부터 270여년 전인 조선 숙종 37년(1711)에 이 북한산에 성을 쌓는 큰 공사가 진행되었다.

인조 15년(1637) 남한산성을 끝내 지키지 못하고 삼전도의 치욕이 있은 후 40년이 지나 숙종이 즉위하면서 국

방강화를 위한 북한축성론이 자주 제기되었다.

북한산성 성곽도성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북한산의 험준한 지리적 조건을 이용하여 성을 쌓고, 북쪽으로부터 있을 수 있는 청나라의 침략에 대비하자는 것이었다. 따라서 우의정 신완·이조판서 김구·훈련대장 이기하·어영대장 윤취상 등 문무중신들에 의하여 자주 건의되던 북한축성공사가 시작되었다.

성의 전체 주위 21여리 약4km를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의 3군문으로 구역을 분담하여 쌓게 하였는데 수문 북쪽으로부터 용암봉까지의 2,292보는 훈련도감에서 축성하였다. 용암봉 남쪽으로부터 보현봉까지의 2,821보는 금위영에서 축성하였다. 수문 남쪽으로부터 보현봉까지의 2,570보는 어영청에서 축성하였다. 주관책임자는 민진후·김우항·김중기 등이었다. 출역인부는 3군문의 군사는 물론 서울시민의 호별 출역과 모집한 역군으로 충당하였으며, 화엄사의 승려 성능(聖能)이 이끄는 승군도 동원되었다.

이 성에는 14개의 성문이 있는데 북문·대동문·대서문·대성문·중성문의 다섯 개 문은 높이가 11~13척, 넓이가 13~14척으로 홍예와 초루가 설치되어 있다. 소동문·소남문·서암문·백운봉암문·용암봉암문·동암문·청수동암문·부왕동암문·가사당암문 등 9개의 문은 높고 낮음이 일정치 않으며, 또 수문이 있는데 높이가 16척이고 넓이는 50척이다. 따라서 4월부터



중성문

시작한 공사가 10월까지 반년만에 쌀 16,381석 등 많은 재물이 소용되어 거의 완성을 보았다. 중성은 노적봉과 중봉 사이에 있는 협곡을 차단하기 위하여 쌓은 것으로, 지형이 평탄하여 취약한 대서문 방면이 적에게 뚫리더라도 병목과 같은 이 일대 계곡을 차단하면 행궁을 비롯한 주요 시설과 인명을 보호할 수 있기에 이중으로 구축한 것이다. 중성 축조는 숙종 38년 5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숙종 40년 가을까지 계속되었다. 성문으로는 중성문·시구문·수문을 두었는데 중성문은 원효봉과 의상봉 사이에 있으며, 서쪽은 수구로 되어 있는데 바닥에는 얇은 물이 흐른다.

탕춘대성은 인왕산과 북한산 향로봉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성곽으로 서성·겹성으로도 불리며, 북한산성의 외성에 해당한다. 탕춘대성은 숙종 39년에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진행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2년만에 홍지문과 오간대수문을 준공하고 그 양쪽에 날개성(翼城) 일부를 쌓았으나 반대론에 밀려 중단되었고, 숙종 44년에 다시 공사가 재개되었으나, 완공을 보지 못하고 다시 중단되었다.



탕춘대성의 홍지문

행궁(行宮)

행궁(行宮)은 전란시 임금이 임시로 거처하는 별궁으로 이궁이라고도 하는데 숙종 38년(1712)에 130여칸 규모로 지었다. 그 위치는 시단봉 남서쪽 아래, 태고사에서 상원봉 계곡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길 우측이다. 행궁은 비상시에 국왕이 피난할 수 있을 만큼 그 규격을 갖추었으며, 그 울안에는 북한산문고(北漢山文庫)도 마련되어 있으며, 성안에 설치한 창고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던 경리청상창(經理廳上倉)이 있었던 곳이다.

당시 행궁의 건립 문제는 북한산성의 축성 못지 않게 조정의 큰 관심사였다. 산성안에 계곡이 깊고 마땅한 터가 없으므로 남향이며 명당 자리인 중흥사 자리를 예정하였으나 뒷산이 가파르고 산사태의 위험이 있다 하여 여러 차례의 검토와 논의가 계속되었다.

숙종 37년 7월 행궁 예정지는 상원암(上元庵)의 옛 터가 제일 넓고 적합하다 하여 지금의 위치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 지역은 개울과 접해 있는 관계로 암석을 파내고 지반을 돋우는 등 몹시 어려운 공사였다고 하는데 조정에서는 난공사임을 감안, 별도로 행궁영건청(行宮營建廳)을 설치하고 축성감동 당상(築城監董 堂上)인 호조판서 김우항과 공조판서 이언강(李彦綱)을 북한행궁영건 당상으로 삼고 호조와 공조의 양 낭관을 낭청으로 하여 축성의 공역과 함께 추진케 하였다. 재목은 지금의 은평구 진관내동 일대인 삼천동에서 벌채하여 송관, 서까래 등으로 썼고 기와 굽는 데에도 이용하였다 한다.

장대(將臺)

장대(將臺)는 장수의 지휘소로 시단봉 위의 동장대·나한봉 동북에 남장대, 중성문 서북에 북장대 등 3개소가 있었다. 이 가운데 동장대는 북한산성의 총 지휘소 역할을 하였으며, 대동문에서 용암문에 이르는



사이에 있었다. 성을 쌓은 이듬해 숙종이 친히 동장대에 올라 시를 지어 오늘에 전한다. 당시 국가에서 북한산성에 쏟았던 용력과 기대를 짐작하게 한다. 지금 이러한 장대와 성문들의 완전한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렵지만 그 옛 터와 옛 자취는 남아 있고, 동장대는 1996년 복원되어 이곳을 찾는 시민들의 감회를 자아내게 한다.



금위영이건기비

북한산성을 관리하고 사무를 보기 위한 곳으로, 관성소(管城所)와 삼군문(三軍門)의 유영(留營) 3개소를 설치하였다. 훈련도감 유영은 노적봉의 거대한 암벽 밑에 자리하고 있었으며, 금위영 유영은 처음에는 보광사가 있는 소동문 아래에 있었으나 뒤에 보국사 아래 현재 금위영 이건기비(禁衛營移建記碑)가 있는 자리로 옮겼다. 어영청은 대성문에서 성안쪽으로 현재 대성암이 자리하고 있는 곳에 있었다.

성랑(城廊) 및 창고(倉庫)

그리고 성곽을 지키는 병사들의 숙소로 성곽 인근에 성랑(城廊) 143개소를 축조하였다. 현재도 성벽을 따라 걷다 보면 안쪽으로 군데군데 건물이 있었던 흔적과 함께 깨진 기왓장이 많이 발견된다. 이러한 건물터가 바로 성랑이 있었던 자리로 성문 주위나 능선의 높은 곳, 성곽이 돌출한 곳 등 지키기에 좋은 지형이나 필요한 지역을 골라 건립하였기에 대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치하였으며, 아직도 30개소 가량은 식별이 가능할 만큼 흔적이 뚜렷하다.

또한 병사들의 식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99개소의 우물과 26개소의 못을 설치하였다. 지금도 계곡이나 사찰(터)을 답사해 보면 도처에서 못과 우물이 발견된다. 규모가 큰우물(샘)로는 삼군문의 유영터에서 발견되며, 작은 우물은 사찰을 중심으로 많이 남아 있어 지금도 사용되는 것이

많다.

식량과 무기·화약 등을 보관하던 곳으로 숙종 38년 4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1년 반 뒤에 완공한 경리청상창(經理廳上倉)·중창(中倉)·하창(下倉)·호조창(戶曹倉) 등 4개소 280여칸 규모가 있었고, 삼군문 유영에도 훈창(訓倉)·금창(禁倉)·어창(御倉)을 건립하였다. 그리고 숙종 40년(1714)에 추가로 성 밖 탕춘대에 10만석의 양곡을 비축할 수 있는 평창(平倉)을 설치하였는데, 이는 험난한 산을 넘어 성안에 양곡을 운반하는 어려움을 덜고 재난시 원활한 구호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북한지』의 기록을 보면, 경리청상창과 호조창은 행궁 앞에, 중창은 중흥사 앞에, 하창은 대서문 안에 있었고, 호조창에는 어공미(御供米) 300석을 저장하였다고 한다.

북한산성을 쌓은 뒤에 경리청(經理廳)을 설치하고 곡물의 출납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성장 1인을 임명하였다. 영조 23년(1747) 경리청을 폐지하고 나서 총융청에 합속한 뒤에는 중군(中軍)이 정례로 겸임하였다.

북한치영(北漢緇營)과 사찰

북한산성의 축성 때에는 전국의 승려들이 동원되어 성능의 감독 아래 부역 임하였으며, 성이 완공되자 승군으로 하여금 성을 수비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승영(僧營)을 치영이라 하는데 남한산성의 남한치영에 대응하여 북한치영은 승대장(僧大將) 1인 이하 350인으로 편제되었다.

승군대장은 팔도도총섭(八道都總攝)을 겸하고 있었는데, 초대 승군대장은 성능이 임명되었다. 치영의 승군들은 낮에는 무술을 익히고 아침·저녁으로는 불경을 공부하면서 나라의 유사시에 대비하였다. 그리고 산성 안에 많은 절을 창건하여 승군의 병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당시 병영으로 이용되었던 사찰은 도총섭이 장무하였던 136칸의 중흥사를 비롯하여 태고사·서암사·용암사·보국사·보광사·부왕사·원각사·국녕사·노적사·경흥사 등 11개 사찰과 원효암·봉성암 등 2개 암자가 있었다. 당시 건립된 사찰의 위치를 보면 전통의 가람 배치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대부분 성문에서 가까운 지점에 자리함으로써 산성 수비가 건립 목적의 주된 요인이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렇게 산성 수비와 무술을 닦는 생활로써 도성의 북쪽 요지를 지켜 오던 승도들은 1894년 갑오개혁 이후 강제 해산되었으며, 사찰들은 임오군란과 의병전쟁 등 제국주의 침략에

저항해 온 투쟁과 1950년 한국전쟁의 와중에서 급격히 몰락한 채 1세기 이상 공백기를 맞고 있다.

중흥사지(重興寺址)와 태고사(太古寺)



태고사

서울의 진산인 북한산의 북한산성 중심부에 중흥사지와 태고사가 있다. 중흥사는 등안봉(登岸峯) 아래 옛 석성인 중흥산성 남쪽에 자리하고 있었으며, 고려 말기 고승 보우(普愚)가 중수한 북한산성 내의 중심사찰이었다. 중흥사는 조선 숙종 37년 북한산성을 축성할 때 기존의 30여칸 규모에서 북한산성을 축성한 후 증건하여 136

칸의 규모로 확장되어 대사찰이 되었다.

따라서 북한산성 안에 있는 승군 350여명을 거느리는 팔도도총섭의 총지휘부 승영으로 기능하였다. 그후 1915년 홍수 때 노적봉 산사태로 무너진 뒤 현재는 주춧돌과 길이 100여m, 높이 5m의 2단 축대만 남아 있어 중건하고자 사업을 벌이고 있다.

중흥사터 바로 위 왼쪽 봉우리에 태고사 있다. 이곳에는 고려후기의 태고사원증국사탑(보물 제749호)과 그 탑비(보물 제611호)가 있어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다. 태고사는 고려 충혜왕 복위 후 2년(1341)에 보우가 삼각산 중흥사의 주지로 있으면서 개인의 수도처로 마련한



중흥사지터

동암(東庵)이었다. 그때 ‘太古’라고 편액하였는데 보우가 입적한 후 태고암이라 불리었다.

태고사원증국사탑은 높이 4m의 원증국사 보우의 묘탑으로 한국전쟁을 전후한 혼란기에 도괴되어 30여년간 방치되었으며 최근에 복원되어 세워져 있다. 우왕 8년(1382) 원증국사가 입적하고 이듬해 다비하여 우왕 11년에 탑비를 세웠다는 비문의 내용으로 보아 탑의 건립연대는 적어도 1385년을 하한으로 잡을 수 있다. 비문은 이색이 짓고, 글씨는 권주가 썼다. 비문 가운데는 이성계가 고려의 신하로서 이 비를 세우는데 문도로서 참여하였음을 보여주는 ‘判三司使李成桂’라는 글이 새겨져 있으며, 그외 ‘判門下崔瑩’ ‘門下侍中林瑩’ 등이 문도로서 새겨져 있다.



태고사원증국사탑(보물 제749호)

태고사는 조선 숙종 때 북한산성을 축성한 후 도총섭 성능이 보우의 유지에 창건한 절로서 당시 총 131칸으로 이때 이름을 태고사로 하였다. 그리고 이때 태고사에서 사비로 사서삼경·고문백선·전등신화·천자문·주자필 등 모두 5,700판을 판각하였고, 금속활자틀 11두를 준비하고 있었다. 또한 서산대사의 청허시를 담은 현액과 영조의 친필 현액이 있었다고 하나 전하지 않고, 한국전쟁으로 붕괴된 채 잡초에 묻혀 있다가 1968년 대웅전과 산신각이 재건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폐사지(廢寺址)

북한산초등학교 앞 산성매표소를 지나 북한천을 끼고 계곡을 올라가면 수문터를 지나 산장을 끼고 80m 가량 올라가면 조금 높은 곳에 넓은 터가 나타난다. 이곳을 지나서도 넓은 터가 연이어 있다. 이곳에서 많은 기와 조각이 발견되고, 개울 쪽에는 군데군데 무너진 석축이 30m 가량 남아 있다. 또한 산기슭에는 담장터로 보이는 흔적도 남아 있어 이곳이 서암사터로 추정된다. 133칸의 규모로 창건된 서암사는 수문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수문 일대의 수비를 맡

은 듯 하다. 처음에는 민지사(閔漬寺)로 불리었으며, 수구문 안에는 민공유서(閔公遺樓)라 하여 고려시대 민지가 살던 터와 민지암이라고 부르던 바위가 있었다.

원각사는 『북한지』에 ‘在龍淵峯近東七十四間僧信楚所創’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로써 원각사는 증봉에서 가까운 동쪽에 스님 신초에 의해 74칸 규모로 창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원각사터는 부왕동암문에서 가까운 전방에 동향으로 자리잡고 있다. 대웅전이 있었던 자리로 보이는 터에는 많은 기와조각과 함께 무너진 석축이 30m 가량 남아 있다. 원각사는 위치로 보아 부왕동암문 일대의 수비를 담당할 듯하다.

북한산장 앞에는 넓은 공간과 함께 물이 늘 풍부한 샘이 있어 옛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 왔는



데, 이곳이 바로 용암사가 있던 자리이다. 용암사는 일출봉 아래에 남향으로 87칸 규모로 건립되었었다. 현재 무너진 탑과 함께 법당이 있었던 자리에 석축이 남아 있으며 주위에는 기와조각이 무수히 널려 있다. 용암사는 용암문과 인접하여 이 일대의 수비를 담당하였으며 승병들의 훈련장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용 암 문

보광사는 대성문 아래에 71칸 규모로 창건되었다는 기록만 전해지고 있다. 보국문에서 대성문 방향으로 산허리에 난 등산로를 따라 걷다 보면 2개의 건물터가 연이어 나타난다. 이곳은 대성문 쪽에서 가까우며 금위영 유영터에서 보면 위쪽으로, 꽤 넓은 터에 제법 잘 쌓은 석축이 있는 것을 보아 보광사터가 추정된다.

보국문과 금위영 유영 사이에 보국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안 사찰 위치가 공통적으로 산성 수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궁·창고 등 성내 시설보다 높게 자리잡아 성문과 가까운 산 중턱에 건립되었다. 보국문에서 성 안으로 계곡을 따라 100m 가량 똑바로 내려가면 등산로 좌우로 약 300평 정도 되는 건물터 두 곳이 보인다. 이곳이 바로 보국사터로 추정된다. 창건 당시는

177칸의 큰 사찰이었으나 막들로 쌓은 석축과 깨진 기와조각만 보일 뿐 주춧돌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오래 전에 멸실된 것으로 보인다.

총융사선정비(摠戎使善政碑)

중흥사지 못미쳐서 현 용학사 아래 누각지 옆 장군봉 발치에는 큰 암반이 있는데 그 근처에 20여개의 석비가 서 있다. 비의 지붕들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없는 것도 있다. 이 비석들은 북한산성을 관리하던 총융사의 재임시 선정과 공덕을 기리기 위해 세운 것으로 대부분 1800년대의 것이며 애민선정비·청덕선정비·영세불망비 등이다.



총융사선정비

예전에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비석이 있었다 하나 지금은 높이 2m 안팎의 비석 21개가 남아 있다. 성내 주민들에 의하면 옛날에는 「북한산승도절목」의 명문 바위 옆에는 무쇠로 만든 비가 서 있었는데 일제때 무기를 만든다고 일인들이 모두 뺏어갔다 한다. 선정비에 보이는 총융청(摠戎廳)은 1624년(인조2)에 설치된 군영으로 수원, 광주, 양주, 장단, 남양 등 진(鎭)의 군무를 맡아보았다. 1747년(영조 23) 경리청을 폐지하고 그 관원을 총융청에 이속시키면서 북한산성의 수비도 담당하게 되었다.

현재 남아있는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석비가운데 몇 개를 소개하면 ‘총융사 유공상량 애민선정비(摠戎使 柳公相亮 愛民善政碑)’ ‘총융사 조공의복 영세불망비(摠戎使 趙公儀復 永世不忘碑)’ ‘총융사 김공기후 애민청덕선정비(摠戎使 金公基厚 愛民清德善政碑)’ 등이며 신헌(申櫛), 김문근(金汶根), 민겸호(閔謙鎬) 등 낯익은 이름도 발견된다.

이와 함께 비석거리에는 또 하나의 귀중한 유적이 있다. 경사진 너른 암반에 ‘北漢僧徒節目’이라는 제목으로 319자가 새겨진 명문을 살펴보면 철종 6년(1885)에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승

도의 우두머리 격인 팔도도총섭의 교체과정에서 생기는 폐단을 없애 산성 수호에 완벽을 기할 것을 촉구하는 규범을 담고 있다.

북한산 승도절목(北漢山 僧徒節目)



북한산 승도절목의 암각명문은 선정비(善政碑)들이 있는 비석거리의 용학사(龍鶴寺) 축대 및 거대한 암반에 장방형 구획을 파고 그안에 정연하게 생겨져 있다. 내용은 19세기 중엽 북한산성내의 대 사찰들이 피폐하여 조석을 보장하지 못하고 승도가 흩어짐에 승군 대장인 팔도도총섭의 책임인바 그의 임명시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암반에 새겨 놓은 것이다.

한 규칙

북한승도절목

「 가 (重地) 가
 가, 가
 가, ()
 (差代,) (城外僧) 가
 (,) 가
) (受教定式, 가

- () (圈點, 가)

- 가

- () 가

(1855) 5 (寺洞) (金) (等)

부 록

한국의 산성(城)

성의 기원과 역사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성을 많이 가진 성읍국가였다. 본래 ‘고구려’라는 이름도 ‘성(城)·고을’이라는 의미의 ‘홀(忽, Khor)’ · ‘골(Kor)’ · ‘구루(Kuru)’ 에서 나왔다. 성은 민족자주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성을 지키는 것은 그대로가 나라를 지키는 것이었다. 우리의 성도 처음에는 적이 건너 오기 힘들게 도랑이나 흙벽을 쌓았다. 그러다가 나무기둥을 엮어 만든 목책성과 돌로 쌓은 성이 나타났다. 벽돌로 쌓은 건축(塼築)도 생겼다. 구조로 보면 한 겹으로 된 단성과 두 겹으로 된 내외성이 있고, 처음에는 단선이었으나 후에 둥근꼴과 네모꼴 성곽도 나타났다.

우리나라 고대성의 경우는 ‘잣’이라 하여 중국계통의 성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있다. 우리나라는 시베리아쪽에서 축성양식들이 도입되었는데, 고구려의 산성입보(山城入褫)가 그 시초이다.

한국은 석성이 많고 둥근 형태이며, 중국은 벽돌성(塼城)이 많으며, 둘레가 사각형이다. 일본은 목책성이 많아 현재 남아 있는 성의 숫자가 적다. 우리나라의 산성 종류를 분류하면, 봉우리 하나를 감싼 원시적인 테피식이 있고, 물을 얻기 위해 골짜기까지 감싸고 있는 형태의 포곡형, 넓은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는 형태의 절충형이 있다.

기록상으로는 고구려 왕검성이 최초의 성으로 서기 전 4,5세기 경이다. 또 중국의 문헌에 우리 부여성(부족국가)의 모습을 ‘모두 둥그렇게 쌓아서 마치 감옥 같다’라고 하였다. 삼국시대에 들어와 수도를 방어하는 도성들이 나타났다. 고구려의 경우 국내성을 도성으로 하고, 환도산성을 도성을 지키는 산성으로 하였다. 그밖에 내외성으로 축성된 평양성, 백제의 사비성과 공산성, 신라의 선도산성과 월성 등이 지금까지 남아있다. 삼국시대는 삼국의 접경지대에 특히 산성들이 몰려 있다. 그 좋은 예가 충북과 경북 접경지대에 몰려있는 온달산성을 비롯 조령산성 등 소백산맥 일대의 산성들이다.

삼국 중 고구려는 축성술이 가장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안시성 싸움에서 보듯이 성곽전(城郭戰)에서 뛰어났다. 백제의 사비성은 도성과 산성을 합친 최초의 예이다. 도성과 산성을 따로 둘 경우 도성을 방어하는 데 분리한 점이 많으므로 산과 평야를 두루 포함하는 평산성 양식을 하게

되었다. 고려시대에는 북쪽과의 접경지에 있는 여러 진보를 연결하기 위해 축성한 천리장성 등이 유명하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화약과 화포 등 무기의 발달로 축성법 등이 많이 변화했다. 특히 연해지방의 읍성, 북쪽 경계지에 세운 행성, 연해지방의 진보축성 등이 새로 나타났다. 외침이 잦았던 조선은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 남쪽에 가장 과학적인 수원성을 쌓았다.

축성재료로 본다면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이 토성이며, 그 다음이 산성, 전축성 순서이다. 토성에는 흙을 쌓아다진 판축성(版築城)과 성곽의 안팎을 깎아서 성벽을 만드는 삭토성(削土城)이 있다. 전축성은 조선 중기 때 중국을 다녀온 실학자들에 의해 주장된 것으로 숙종 때 강화성 여장 일부를 전(塼)으로 바꾸었으며, 정조 때 수원성 역시 전을 많이 사용하여 쌓은 성이다.

성과 관련된 민속행사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성밟기이다. 고창읍성의 경우는 한바퀴 돌면 다리병이 낫고, 두 바퀴 돌면 1년 내내 무병하며, 세 바퀴 돌면 극락왕생을 한다는 속설이 전해지고 있다. 머리에 돌을 이고 성을 밟는 이러한 성밟기 민속은 겨울 동안 약해진 성의 기반을 다지고 성을 보수하는 데 보다 큰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성들은 거의가 훼손되어 옛 모습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다. 성은 전쟁 중에 또는 오랜 세월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훼손된 것보다 인위적으로 훼손된 것이 더 많다. 그 가운데는 일제에 의해 고의적으로 훼손된 것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충남 홍성의 홍주성은 이곳에 주둔하던 일본군들에 의해서 의병들의 근거지가 된다는 이유로 철거되었으며, 서울 도성이나 전주성은 새로 길을 낸다는 이유로 일제에 의해 헐리게 되었으며, 대구의 성곽 역시 일제에 의해 철도가 놓이면서 없어졌다. 일제는 성을 우리 역사와 국권의 상징으로 보고 무자비하게 훼손하였다. 해방 후에는 새마을사업 등으로 해서 또 상당수가 훼손되기도 했다.

성의 종류

- 가. 도성(都城): 왕궁을 중심으로 쌓은 방어용 성으로 일명 왕성, 황성이라 한다.
- 나. 나성(羅城): 도성을 지키는 외곽의 성. 북한산성이나 남한산성이 그 예이다.
- 다. 읍성(邑城): 지방의 행정도시를 방어키 위해 축성된 성. 낙안, 고창, 해미등의 읍성이 대표적이다.
- 라. 창성(倉城): 곡창 등 창고를 지키기 위해 세운 성.
- 마. 진보(鎭堡): 군사요충지에 군인 주둔을 목적으로 쌓은 성

바. 행재성(行在城):왕이 행차할 때 일시적으로 머무는 성

사. 행성(行城):국경과 요새에 쌓은 성으로 일명 장성(長城)이라고도 한다.

성의 위치

가. 평지성 : 강이나 개울을 방어선으로 할 수 있는 곳. 대개의 읍성이 이 경우에 속한다.

나. 평산성 : 산성과 평지성을 합친 성이다. 수원성과 사비성이 그 대표적이다.

다. 산성: 규봉(성을 넘겨다보는 산)을 피해 물 얻기 쉬운 곳.

현존하는 주요 성

가. 압록이북 / 국내성, 왕검성, 졸본성, 위니암성...

나. 한강이북 / 평양성, 철옹산성, 황룡산성, 장수산성....

다. 한강이남 / 북한산성, 남한산성, 서울도성, 온달산성(단양), 공산성(공주),

죽주산성(안성), 수원성, 적성산성(무주), 견훤산성(상주), 남도산성(진도),

동래읍성(부산), 부소산성(부여), 해미읍성(서산), 조령산성(문경), 월성(경주),

삼년산성(보은), 처인성(용인), 고창읍성(고창), 남도석성.

라. 서울근교 / 도성, 북한산성, 남한산성, 몽촌토성, 아차산성, 풍납토성

성안의 시설

성안에 마을이 있는 읍성의 경우를 예를 들면, 성안에는 제사를 지내는 사직단, 걸인이나 객사한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 혼령을 지내는 여단, 농산물을 보관하고 위탁 관리하는 사창(社倉), 물건을 사고 파는 장시(場市)와 주막도 있었다. 물론 마을 수령의 집무실인 동헌과 수령의 살림집인 내아(內衙)를 비롯한 관아의 여러 건물들도 성안에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예는 현재 낙안읍성이나 고창읍성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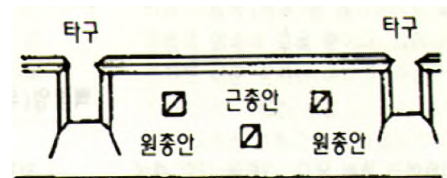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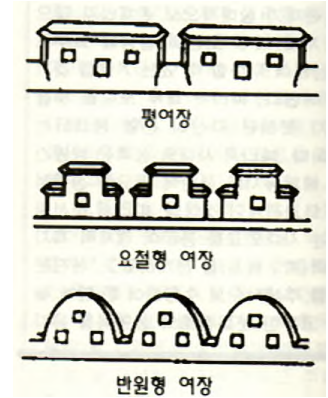
성문의 종류

가. 곡행문 : 바깥이 에스자 모양으로 굽어진 문

- 나. 현 문 : 다리를 놓아서 들어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문
- 다. 홍예문 : 무지개 모양으로 된 일반형 성문
- 라. 사각문 : 비교적 규모가 작은 사각형으로 된 성문
- 마. 암 문 : 적을 뒤로부터 공격하기 위해 은밀하게 설치한 문

성곽의 구조 명칭

- 가. 홍 예 : 성문의 둥글게 구축한 석문의 양식
- 나. 면 석 : 성밖에서 보이는 성의 앞면을 쌓은 돌
- 다. 지대석 : 성곽의 아랫부분에 놓인 크고 굽은 돌
- 라. 미 석 : 성벽 맨 윗부분에 바깥으로 나오도록 얹힌 돌
- 마. 석누조 : 성문의 홍예 부분에 돌출되어 있는 돌로서 물을 받아내리는 부분



- 바. 선단석 : 홍예 부분의 맨꼭대기에 돌출되어 있는 돌
- 사. 치 성 : 성벽을 오르는 적을 측면에서 공격할 수 있도록 돌출된 성곽의 부분
- 아. 옹 성 : 성문을 파괴할 수 없도록 성문 앞에 둥글게 한겹 둘러싼 성벽
- 자. 공심돈 : 일종의 망루로서 치성의 역할까지 겸한 것.
- 차. 포 루 : 포를 쏠 수 있도록 쌓은 석루
- 카. 여장과 옥개석 : 성곽 위에 II 형으로 돌출된 부분과 그 지붕. 성가퀴라고도 한다. 여장은 여러 개의 연이은 타(堞)로 이루어져 있다.
- 타. 타(堞)와 타구(堞口) : 여장을 이루는 부분으로, 화살이나 포를 막기 위해 쌓은 구조물이다. 총이나 활을 쏠 수 있도록 충안과 사혈이 뚫려져 있다. 타구는 타와 타 사이의 공간을 말하는데 공격형 구조물이다.
- 파. 충 안 : 성밖의 적을 보고 공격할 수 있도록 밖을 향해 뚫어놓은 구멍이다. 멀리 내다볼 수 있도록 수평으로 뚫어놓은 원충안과 가까운 곳을 볼 수 있도록 경사지게 뚫은 근충안이 있다.



성곽건축

- 성(城) : 적군을 막기 위하여 쌓아올린 높은 담벽
- 성곽(城廓) : 내성(城)과 외성(廓)을 포함한 성의 둘레
- 내성 : 이중으로 두른 성의 안쪽에 있는 성. 북한산성의 내성은 중성문이다.
- 외성(나곽, 나성) : 이중으로 두른 성의 바깥쪽에 있는 성. 북한산성의 외성은 탕춘대성이다.
- 옹성(곡성) : 성문을 방어하기 위하여 성문의 앞을 빙 둘러쌓은 성
- 월성(반월성) : 성곽의 형태가 달 모양 같은 성
- 장성(관성) : 국경 지역에 외적을 막기 위하여 길게 둘러친 성
- 도성(경성, 재성) : 왕이 거주하는 행정의 중심지에 쌓은 성. 평지에 정방형으로 축성된 중국과 달리 우리의 경우는 자연 지세에 따라 자연스럽게 축성된다.
- 읍성 : 지방 행정부가 있는 고을에 축성되며, 성안에 관아와 민가를 함께 수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읍성은 대부분 산성과 평지성의 절충식이다.
- 산성 : 산에 쌓은 성으로 산 정상에 둘러쌓은 테피식, 계곡과 산정을 함께 두른 포곡식과 이 둘을 절충한 혼합식이 있다.
- 판축법(版築法) : 성벽을 쌓을 때 돌을 판판하게 깔고, 그 위에 흙을 펴 고르며 다지는 것을 반복하여 축조하는 기초 공법(풍납토성).
- 삭토법(削土法) : 성터의 안팎의 깎아서 만드는 방법. 산지에서는 산기슭의 안쪽과 바깥 쪽의 흙을 파내어 가운데를 둔덕처럼 만들고 그 위에 흙을 쌓아올린다(아차산성).
- 내탁(內托) : 성벽의 바깥 벽은 돌로 쌓고, 이를 안쪽에서 받치기 위해 토사와 잡석으로 다져서 비스듬히 쌓아 올린 것을 말함.
- 성문 : 성의 안팎을 연결하는 통로로서 출입구로의 기능만이 아니라 적의 공격을 방어하고 전세가 호전될 경우 반격을 하거나 또는 성내에 필요한 물자를 운송하기 위해 적절한 위치에 만들어 놓는다. 성문의 종류에는 정문(正門), 간문(間門), 암문(暗門), 수문(水門)이 있다.
- 문의 형태는 규모에 따라 아래의 형식을 취한다.

- 개거식(開據式) : 문입구에 덧개돌이 없이 성벽의 일부를 절단하여 통행로를 낸 문. 산성에 주로 사용.



- 평거식(平據式) : 양쪽 성벽위에 긴 장대석이나 판석을 걸쳐 문입구를 형성. 성문의 크기가 작은 곳에 이용.
- 홍예식(虹霓式) : 성문입구를 무지개 모양의 곡선으로 만든 문. 크고 잘 가공된 무사석으로 쌓아 성문을 크게 만들 수 있다.
- 체성(體城) : 성곽의 부속 시설을 제외한 몸체 부분. 즉, 성벽을 일컫는다. 체성의 경사 비율에 따라 방어력이 결정되므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 규형(圭形) : 성의 몸체가 밑에서부터 점차 위로 올라가면서 곡선

으로 휘어올라간 상태

- 보루(堡壘) : 적의 접근을 저지하기 위하여 돌, 흙 등으로 견고하게 만든 군사 건축물.
- 대(臺) : 높이 쌓아서 사방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든 곳
- 장대(將臺) : 성곽의 동, 서에 쌓아올린 장수의 지휘대
- 적대(敵臺) : 성문 양옆에 외부로 돌출시켜 옹성과 성문을 적으로부터 지키는 방향의 대
- 노대(弩臺) : 성 가운데에 활을 쏘기 위하여 높게 지은 대.
- 돈대(墩臺) : 성안 높직한 평지에 높게 축조한 포대(砲臺). 그 안은 낮고 외부는 성곽으로 축조하여 포를 설치함.
- 봉돈(烽墩) : 봉화를 올리는 높은 대.
- 공심돈(空心墩) : 돈대의 일종으로 두꺼운 벽을 원형 또는 방형으로 높이 쌓아올리고 벽면에 낸 총구를 통하여 적을 사격함.
- 치(雉) : 성벽의 일부를 돌출시켜 적을 효율적으로 격퇴시킬 수 있도록 쌓은 성벽
- 초 : 성 위에 지은 누각
- 포루(鋪樓) : 성벽 위나 성안에 지은 집. 성벽 위에 있는 것을 포루, 성안에 있으면 포사(鋪舍)라 한다(砲樓와 다름).

집필진

- 나각순 (두레문화기행 연구위원, 서울시사편찬위원회, 문학박사)
- 김재일 (두레문화기행 회장, 민학)
- 이지호 (두레문화기행 연구간사)
- 북한산관리사무소 서부지소

북한산성 자연해설프로그램 해설집 (북한산성 역사·문화)

제작일 : 2001. 7

1차 발행일 : 2001. 8 (원본) 발행
2차 발행일 : 2002. 8 (수정본) 발행

발행인 :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서부지소장 이행만

발행처 :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서부지소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229-104

Tel. (031) 873 - 2791~2

Fax. (031) 871 - 7972

《 비매품 》

홈페이지 : <http://npa.or.kr/pukan/main.asp>

ID : www.pukan_w@npa.or.kr

이 책은 실린 글과 그림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복제를 금합니다.